

◇ 時計發明은 바빌로니아人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發明된 時計는 해 시계이며 發明한 사람은 紀元前 2,000年頃 옛날의 바빌로니아人이다.

發明한 사람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해시계는 그노몬이라고 불리는 막대(棒)를 널판의 表示된 位置에 세워 놓고 그 막대의 길이나 方向에 따라 時刻를 잴다는 것이다.

이 해시계의 缺陷은 해가 비치지 않으면 計時할 수가 없는 점이며 이에서 터득하여 기원전 5世紀쯤에는 물시계가 發明되었다. 그 물시계는 구멍이 뚫린 그릇에 물을 넣어 구멍을 통하여 떨어지는 물방울의 水量에 따라 시간을 잴었다.

그 외에도 물건을 태워서 그 速度로 시간을 재는 불시계가 發明되었고 또한 모래가 쏟아지는 量으로 計時하는 모래시계 등도 기원전에 모두 發明된 것이다.

中國에서는 바빌로니아人의 해시계의 發明과 비슷한 年代쯤에 해시계나 물시계가 쓰여졌다는 史記가 있으므로 어느쪽이 精巧하고 먼저인지는 분간할 수 없다. ㉠

◇ 寫眞機는 畫家가 發明

世界에서 가장 먼저 寫眞機를 發明한 사람은 프랑스의 드게트거이며 1839년에 완성하기까지 연구를 거듭한지 20여년이 걸렸다. 드게트거는 風景畫家였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아름다운 自然風景을 사실 그대로 옮길 수 없는가에 着眼하여 연구를 시작한 것이 사진기의 시초이다.

그는 어느날 연구에 失敗한 鍍

銀板을 책상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다음날 무심코 꺼내 본즉 그 도은판에 사진이 定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랍속을 조사해 본 바 그 속에 있던 水銀이 作用하였음을 발견하고 사진기의 發明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 그는 수은의 蒸氣를 이용한 사진기를 發明했고 그 이름이 드게레오타입이라고 전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진기는 한 번 찍으려면 被寫體가 30分以上 움직이지 않아야 했다. ㉠



發明小史

◇ 氣球의 發明은 製紙業者

氣球의 發明은 프랑스의 製紙業者의 아들들이고 기구에 처음으로 타 본 사람은 프랑스의 物理學者인 로제이다.

발명자의 이름은 제지업을 하는 아버지의 공장에 종사하던 몽골케라는 兄弟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공장에 나오는 파지를 불태우는 것이 맡은 일이었으나 그들이 종이를 태울 때마다 타고 남은 종이의 재가 높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紙袋속에 연기를 넣어 空中에 띄워 보았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형제는 政府로부터 研究費를 받아 드디어 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1783年 9月 5일에 지대의 空中浮上試驗 이래 4개월만인 그해 10월에는

기구에 물리학자가 타고 공중을 나르게까지 되었다. ㉠

◇ 皮革潤澤의 술츠方法

皮革을 부드럽게 하는 方法을 創案한 것은 1884년의 美國人 술츠이다. 그는 크롬의 化合物로 가죽을 문질러 윤을 내는 방법을 창안했고 이어 이 방법이 工業化되어 오늘의 製法의 始祖가 되었다.

지금도 장갑이나 가죽잠바의 윤내는 법은 술츠의 것을 應用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술츠의 계법이 發明되기 이전에는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動物기름으로 문지르거나 糞尿에 담근 다음 물고기 기름을 바르기도 했고 로마時代에는 단닝이나 明礬을 사용하기도 했다. ㉠

◇ 煎餅은 中國의 宮中飲食

日本語로 煎餅(센베이)라고 말하는 菓子는 우리나라에서도 즐겨 먹고 있으나 그 始原은 中國의 前漢時代에 宮中에서 즐기던 것이다.

이 과자가 日本에 傳來된 것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平安朝時代라 할 때 알려져 있으며 中國에 修學하러 갔던 弘法大師가 歸國 후에 傳來했다는 것이다. ㉠

